

전남도, 한강 노벨문학상 계기로 독서인문교육 끌어올린다

전남교육청, 학생들 독서습관 형성 글쓰기·책 출판 지원 활동 등 확산
내달 18일부터 작품전시회 열어 전남 50개교, 수상 뜻 이을 계획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인문교육과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이 지난 11일 선정됐다. 국내 작가로는 최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은 호남에서 두 번째 노벨상으로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은 무엇보다 호남인들에게 큰 자긍심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는 전남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어서 그 기쁨이 곱절로 의미를 더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드높아진 독서 열기를 한 차원 높은 전남의 독서인문교육으로



전남교육청 청사.

/전남교육청

끌어올려 '책읽는 전남교육'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을 여는 독서교실' 및 학생들의 글쓰기와 책 출판을 지원하는 '나도작가 프로젝트' 등을 확산해 가고, 지역과 가정에서도 독서교육을 이어갈 지역 독서인문생태지도 구축에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8~22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는 전남 50개교가 참여하는

'2024. 나도작가프로젝트' 학생 책 출판 작품전시회'를 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뜻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호남에서 두 번째 노벨상을 안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독서인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을 깨닫게 한

수상이었다."며 "글로벌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해 제3의 노벨상을 호남에 안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는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9살 때 상경했으며, 아버지는 전남 장흥에 터를 잡고 있는 소설가 한승원이다. 한강 작가는 2005년 단편소설 '몽고반점'으로 최연소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이미 국내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소설의 소재로 주로 우리 지역의 삶을 담았기 때문이다.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수상)뿐 아니라 그가 9년을 걸쳐 쓴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 운동의 고통과 상처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해남 명소, 예술로 만나요”

해남군이 2024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남은 봄부터 미술관이다'의 세 번째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해남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실에서 10월 20일까지, 행촌미술관과 산이 갤러리에서 11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 작품은 지난 3월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된 2024년 해남 봄 답사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해남의 명소인 대흥사, 미항사, 도솔암, 임하도, 옥매광산, 산이정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유화, 수묵화, 추상화,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14일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긍정양육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의 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 마티아스 바이틀 의장의 제안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하윤수 시교육감을 제안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부과

울산시는 대규모 시설 인근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4592건 1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 도시 교통 관련 사업의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3000㎡ 초과) 시설물의 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 기준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영양군

농업용 드론으로 벼 방제 실시

영양군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56ha에 277농가를 대상으로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벼 드론 방제를 실시했다.

드론 방제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제보다 더 넓은 면적을 보다 빠르게 방제할 수 있어 고령화된 농촌에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차에는 세균성 병과 2차에는 비래해충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방제를 실시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 법인택시 구인난 대응 박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 오는 17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려 일자리박람회와 연계 추진 '시너지'

부산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일대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기사 구인난에 함께 대응하고자 처음으로 개최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위해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 부산 50+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한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법인택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부족으로 인한 운행 활동이 급감하는 등의 경영난 속에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법인택시 업계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기사의 택배 배달업계로의 이탈에 따른 가동률

급감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5000명 넘게 감소했다.

이에 법인택시 가동률도 44%에 그치고 있다. 택시회사에서 10명이 필요하다면 4명만 확보한 상황으로, 일할 사람이 줄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박람회는 시와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1:1 구직자 채용상담 ▲체험 프로그램 ▲시정 책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됐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택시업계가 종사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법인택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 지원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교육청, 한 달간 '독도 사랑 행사' 진행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경북교육청이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에서 다양한 '독도 사랑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청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의 하나로, 전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도사랑 행사'는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와 '손 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출석 체크 이벤트', '수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 국민에게 독도 사랑과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3년째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사업이 전 국민에게 독도 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며, 범국민적 관심을 높여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반려견 놀이터 전경사진.

전남도, 장흥서 '통합의학' 교류 장 마련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펼쳐져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결합해 전인적인 건강을 돌보는 대한민국 유일의 환자 중심 '2024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장흥에서 펼쳐진다.

전라남도과 장흥군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을 주제로 18일 오후 2시 개막, 장흥 안양면 통합의학박람회장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올해 박람회는 대구 전진병원과 광주 위담통합병원 등 통합의학 전문의

료기관이 참여해 통합의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 교류 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어싱길, 맨발 지압존, 야외 약초 족욕장 등 통합의학적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방문객이 다양한 통합의학 체험을 직접 경험하도록 준비했다.

박람회 기간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건강증진관, 건강음식관, 힐링테라피&의료산업관 등 총 6개 전시·체험관이 운영된다. 전국의 대학병원, 대학, 협회 및 단체 등 110여 기관이 참여해 진료와 통합의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 큰 호응 속 성료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홍보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엑스포대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견과 함께하는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무대 프로그램 ▲반려견 놀이터 ▲부스 체험 및 경품 증정 이벤트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퓨리아빠로 유명한 슬리피와 이용중 교수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팻켓 OX 퀴즈, 기다려 대회,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펼쳐졌다.

모든 반려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반려견 운동장과 놀이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으로 구분돼 운영됐다. 넓은 운동장 내에는 다양한 어질리티 장비가 마련됐다.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는 국가대표 훈련팀 및 경주개동경이 팀의 어질리티 공연이 선보였고, 독스포츠 어질리티 체험교육도 병행됐다. 또 K-국견을 만나다(동경이 및 삼살개 체험) 등 다양한 부스는 축제의 흥미를 한껏 더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